

안녕하세요 글 쓰는 공장 '파급 효과'입니다. 어제 약속을 갠 죄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법한 글들을 열심히 짚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많이 읽힌 글'에 두 개씩이나 제 글이 있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본론입니다.

국어 학습법에 대해 매우 많은 분들이 댓글로든 쪽지로든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답해 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더 실용적일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달에 제가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했는지 소개도 시켜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일개 학생일 뿐이고 제 방법이 무조건 맞다는 아닙니다.)**

먼저 6월부터 단기간 한 기출을 어떻게 풀고 분석했는지에 대한 글입니다.

먼저 저는 시간이 얼마 없었고

**비문학이 약했기에 18 기출(현역), 17 기출은 빠짐 없이 다 보고**

**그 이전 기출은 14 년도부터 16 년도에 한해서만 비문학, 문학 위주로 학습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에 그 유명한 릿밋도도 볼 시간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설로는 온라인 김봉소 모의고사 15 회, 그에 딸린 월간 김봉소 12 회,

어쩌다 받은 김봉소 간쓸개 2 회,

그리고 이벤트로 얻은 온라인 상상모의고사 1 회로 학습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출을 어떻게 학습했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괜찮다고 싶은것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람마다 국어 기출 분석 방식이 다르겠지만 제가 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문제보다지문을 먼저 제대로 뚫자 주의입니다.**

**(사실 문제 분석에는 그리 많이 하지 않았습디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이므로 대부분 기출을 처음 보는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70 분 정도 재고 일단 다 풀니다.

(기출 학습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며 80 분 재고 제대로 풀니다.)

이 때 막 답이 기억난다는 등 해서 풀지 마시고

**나는 이 지문을 처음 본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출과**

**그동안의 학습으로 깨달은 방식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비문학, 문학, 화작, 문법으로 쪼개서 제 방법론을 소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문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문학을 푸실 때 글을 통합적으로 씹어 먹듯이

지문을 다 외워 버릴 기세로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기세라면 주변에 방해물들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문을 외워버려야 하거든요.

수능 때 실제로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가채점표에 답을 안적이고 왔는데도 지문과 답이 다 기억났습니다.)

그리고 순서나 과정은 빈 공간에 꼭 정리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래야 문제 풀 때 돌아오는 횟수가 줄어 듭니다. (18 수능 부호화, 19 6 평 키트 지문)

그리고 비문학 <보기>는 제발 보기 분석하시고 선지 봐야합니다.

아니면 평가원한테 당해버립니다.

보기 부분 관련된 지문 문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문단표시 안하면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글 읽기 전에

제발 들여쓰기 한 부분에 문단 번호 좀 표시해주세요.

그러면 심리적으로도 한 문단 한문단 뚫어간다는 느낌이

게임 stage clear 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재밌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주의해주세요. 하지만 정확합니다.

저는 18 수능 때 부호화, 오버슈팅, 갈릴레오(?) 15 분, 15 분, 5 분 투자했습니다.

솔직히 시간 땀에 흘렸어요.

하지만 김봉소 풀 때도 타임 어택을 많이 당해봤기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제 느낌은 그냥 아 이런일 자주 있지 쫄지 말자 아자아자였습니다.

비문학에 틀린 문제나 헷갈린 문제가 있었다면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

문제와 관련된 지문 부분을 다른 문단과 잘 연관지어 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문제로 돌아와 각 선지의 틀린 '특정' 부분에 정확히 X 표 칩니다.

(굳이 지문과 연결선을 긋진 않아요.)

참고로 저는 문제 풀 때도 최대한 지문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지문을 씹어먹어버리는 거에 가까워 지더군요.

## 두번째, 문학

문학은 아마 푸실 때 표시같은건 다 하실겁니다. (긍정 시어 부정 시어 반어법 등등) 비문학과 다르게 돌아올 부분은 확실히 돌아오고 꼭 지문에서 워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학 문제 선지들을 오히려 유심히 봤습니다.

선지들 대부분 A(지문 발췌)를 통해 B(감정, 표현법 등등) 형식입니다.

이때 B부터 봅니다.

B가 오답이어서 틀린경우가 대다수이더라고요.

그리고 A가 있고 B가 말이 된다면 A,B 연결고리는 굳이 짓지않습니다.

단, 인과관계가 이런건 조심해야합니다.

(18 9 평 22 번 4 번 같은 경우 A, B 부분이 다 맞지만 ~로서 관계가 틀립니다.)

그리고 요즘 기출에서 주관적 감정 관련 워딩은 지문 속에 있습니다!!!!

예상으로 때려 맞추지 마세요. 문학이 비문학화 되고 있습니다.

## 세번째, 화법과 작문

화작은 요즘 난도가 올라간만큼 선지 읽을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작도 비문학처럼 되었고 18년도 6월처럼 썰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썰려서 화작만 3개 틀린 기억이 있네요.

화작 불안하다 싶은 분은 기출 양치기 하세요.

## 네번째, 문법

문법은 꾸준히 감 유지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문법 학습이 덜 된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박광일 5일 문법인가를 듣고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출 양치기를 하시면 될 겁니다. EBS 문법 예시들도 잘 봐주세요.

## 마지막, 시간관리

**제발 모르는건 넘어가세요.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은근 고집 있으면 고치기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구요,

대부분 내가 이 문제에 5분을 투자했는데 넘어가기 아깝다 이 마인드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본전 회수하겠다고 전재산 끌어박는거죠.

그리고 순서대로 풀기보단 가속도 붙는 방향으로 푸세요.

저 같은 경우 문학, 비문학, 화작문 순으로 풀었습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25분, 35분, 20분 동안 풀었습니다.

## 마킹은 언제 하나요?

저는 사실 수능 국어 때 정말 멘탈 나가서 마지막 화작문 13문제나 남았는데 10분 밖에 안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항상 국어 시간이 쪼달린다는걸 아시고  
제발 마지막 10분 남을 때 마킹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킹을 2-3분 전에 하시면 마음이 급해서 마킹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30초 걸릴 마킹 5분 걸립니다.**

**여러분도 10분 전에 안전하게 마킹하세요!!**

저는 2초간 고민하다가 결국 마킹부터 했고 나머지 13문제를 9분 20초 안에 다 풀고  
나머지 10초 동안 헛갈린 문제와 시계 초침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시험이 끝난게 아닙니다.**

**마지막 1초까지 집중해주세요.**

**마지막 1달 사설이나 릿밋잇 이용법**

**꼭 고3 평가원 수능 기출로 마무리 지으셔야합니다. 꼭!!!!!!** 아니면 내 국어 구조가 사설에  
맞춰져요.

사설은 틀린것만 고치고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기출로 학습한 방법대로 잘했나? 마킹까지 시간 관리는 잘했나?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유익할 수도 있는 글 링크

<https://orbi.kr/00018840609/> ----> 미국 구글 본사는 꿈의 직장?

<https://orbi.kr/00018839767/> ----> (경험담)수능 때 기적이라는게 있을까?

<https://orbi.kr/00018834366/> ----> 수능날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왔다면? (경험담)

<https://orbi.kr/00018818915/> ---->작년 아주대 의대 학종 면접 복기

<https://orbi.kr/00018822647/> ----> 10월 21번의 자세한 손풀이 및 역함수에 대한 태도

<https://orbi.kr/00018802169/> ----> 10월 20,29번 손풀이